

강도범 날뛰는데... 기어가는 경찰

작년 전국 절도 검거율 고작 36% 광주 7대 범죄 발생률 가장 높아

광주경찰이 음주운전·공무집행 방해, 뇌물수수·횡령 등 자신들의 잇따른 비리에 치여 민생치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생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가 잇따르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19일 경찰청이 내놓은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절도범죄 발생 건수는 29만649건으로 10년 전(2002년) 17만8450건에 비해 62.9% 급증했다.

반면, 경찰의 절도사건 검거율은 2009년 69.2%까지 올랐다가 지난해의 경우 36.5%까지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3건 중 2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광주도 비슷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내놓은 '5대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2004년 이후 절도 발생 건수가 단 한 차례도 감소하지 않았다.

간간·강제추행 사건도 2007년 437건에서 ▲2009년 525건 ▲2010년

586건 ▲2011년 724건으로 급증했다. 5대 범죄 검거율도 2009년 67.9%에서 2011년 59.2%로 떨어졌다는 게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설명이다.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광주의 경우 지난 3년간(2009~2011년) 10만명당 살인·강간 등 7대 범죄 발생률로는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자체 통계 분석을 통해 지난 2011년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광주의 경우 4228건으로 제주도(4472건)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3년(2010년~2012년) 전국 경찰서별, 지역별 성범죄 현황' 자료에서도 광주의 지난해 성범죄 발생

건수는 1005건으로, 지난 2010년(671건)에 비해 49.8%(334건) 늘어났다.

상무·금호 지구 등이 포함된 서구 지역은 2010년(187건)→2012년(249건)까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첨단 지구를 중심으로 한 광산 지역 성범죄도 2010년 103건에서 2012년 217건으로 급증했다.

강력범죄도 끊이지 않아 19일 새벽 2시58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편의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여종업원(19)을 흉기로 위협, 현금 5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전날 밤에도 운암동 임모(73)씨 집에 침입,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방화 추정 화재...노부부·아들 숨져 완도서... "용돈 안준다" 40대 아들 불낸 듯

기초노령연금과 발송사로 어렵게 살아가던 노부부가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던 40대 아들과 다름 끝에 화마에 휩싸여 일가족이 함께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지난 18일 오후 8시20분께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이 숨지고 주택 55㎡를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19일 완도경찰은 집 안에 있던 아버지 오모(80)씨와 어머니 이모(66)씨가 각각 거실과 현관 입구에서, 셋째 아들(42)은 주방에 숨져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어머니 이씨는 불이 나기 전인 오후 6시30분께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막내가 시너를 들고 와 집에 불을 지르러 한다"며 "너

희들이 빨리 오지 않으면 내가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거실에서 불에 탄 양철통을 발견하고 시너가 담겼던 통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유족들은 아버지 오씨가 2005년께 눈 수술을 받아 시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으며 척추장애까지 있어 부인 이씨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오씨는 부모와 금전 문제로 빈번히 다투었으며 불이 난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이씨에게 "통장에 왜 잔고가 없느냐"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나원침 (8757) 김종두



순천 마을우물에 농약?

순천의 한 마을 공용우물이 갑자기 뿌옇게 변하고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가 나섰다.

19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순천시 대대동의 한 마을에서 "공용우물에 흐릿한 액체가 부어 있는데 농약이 아닌가 싶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물이 평소와 달리 흐릿한 빛깔을 띠고 있고 계란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순천=김은조기자 ejkim@

이번엔 목포서 무더기 中 강제배정

원도심 배정 반발 108명 무안 남악중 전학 신청

상당수 위장전입 부작용

무안 남악중학교가 수 년째 목포 지역 학생들의 무더기 전학 신청으로 물살을 앓고 있다.

19일 전남도교육청과 무안 남악중학교에 따르면 최근 중학교 배정에서 M여중, Y중, H여중, C중 등 목포 원도심 중학교에 배정된 중1 신입생 108명이 무안교육지원청에 무더기로 남악중 재배정(전학)을 신청했다.

이들 대부분은 남악신도시 내 목포 옥암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부모들은 자녀가 옥암지구에 있는 옥암중·예향중에 배정받지 못하고 원도심에 강제 배정되자 아예 무안 남악지구로 이주해 학교 재배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들 상당수는 친척이나 지인의 주거지로 잠시 주소만 옮겨 위장전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남악지구의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거지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배정 사태는 옥암지구 개발 이후 2011년 100명, 지난해 78명 등 수 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남악중 교사들은 "이들이 남악중에 입학할 경우 과밀 학급과 학습 부담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힘들다. 상담실·남녀 학생 탈의실·교사휴게실 등 복지시설도 없 어지게 된다"며 "재배정을 취소해 달라"고 전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했다.

이는 남악신도시 내 무안 남악지구와 목포 옥암지구가 행정구역이 달라 중학교 배정에서 분리되기 때문이다.

또 옥암지구 개발 이후 목포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학생 수도 급격히 줄어 원도심 학교 유지를 위

해 남악지구 학생들을 강제 배정한 것도 한 원인이자.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옥암지구 학생들을 모두 근거리 배정할 경우 목포 원도심 학교는 학급 감축은 물론 폐교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된다"며 "원도심 내 중학교의 옥암지구 이 설이 방법인데 지역주민과 동문들의 반대가 심해 어려운 상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신설도 목포지역의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안교육지원청은 이날까지 108명에 대한 재배정 실사를 마무리 하고 20일 남악중학교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남악중은 이들을 포함해 21일 반편성 배치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노인 등친 '가족 사기단' 부부·아들 공모 투자금 6억 가로채

80대 할머니 차모씨는 동네 노인의 소개로 만난 고향 후배 김모(여·45)씨로부터 '외환 마진거래'에 투자하는데 100만원을 6개월만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선뜻 빌려줬다. 워낙 말주변이 좋은데, 김씨가 2개월간 꼬박 꼬박 이자를 건네자 차씨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 사업에 손해를 봤다며 원금을 주지 않았다.

차씨는 원금 생각이 김씨에게 수

신학기를 앞두고 조선대 주변에 원룸과 하숙을 안내하는 전단지들이 빼곡하게 나뒀어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남편 김모(46)씨와 아들(27) 등 2명과 공모 최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모 공영기획사 대표인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노인들을 상대로 외환 마진거래 및 마당놀이 공연에 투자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준다는 투자금 명목으로 5억 7000여만 원을 횡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블루베리 사업에 투자하면 이자와 원금을 준다고 속여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이혼한 남편 사무실서 2억 통장 슬쩍

이혼한 남편 사무실에 들어간 손금 반지와 적금통장을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서 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19일 박모(여·39)씨가 지난 2일 오후 2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소재동에 있는 전 남편 김모(45)씨의 사무실에 열쇠를 끼고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에 보관중이던 시가 290만원 상당의 순금 생가락지 4개와 2억원 가량이 입금된 통장 등을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지난해 10월에 이혼한 김씨가 위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화가나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노현정·박상아 소환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전직 아내로서 노현정(32)씨와 전 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노씨와 박씨의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달 중에 노씨와 박씨를 소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가

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노씨와 박씨의 자녀는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와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간장의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펼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와 한다. 말기심장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 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한한의원협회 의료원고성빌딩 제120106호-중-9819호 (광주) 광주점 062-368-5075

www.indara.co.kr 광주은행 6층(신세계백화점사거리)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짝짝하고 눈물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얼굴기가 걸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Canon

EOS 60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